

|유아, 초등 저학년| 〈선생님 이름은 ㅅ〉

모니카 아르날도 지음 | 신형건 옮김 | 보물창고 펴냄

- ★〈캐나다 총독 문학상〉 최종후보작 ★〈아마존〉 이달의 베스트 도서
★〈퍼블리셔스 위클리〉 올해 최고의 책 ★〈스쿨 라이브러리 저널〉 올해 최고의 책
★〈북리스트〉 올해의 어린이·청소년책 ★〈뉴욕공립도서관〉 올해 최고의 책
★〈시카고공립도서관〉 올해 최고의 책 ★〈에반스톤공립도서관〉 올해의 훌륭한 어린이책



“아르날도의 이 엉뚱하고 흥미로운 신학기 이야기엔 혼란, 미스터리, 웃음이 메뉴로 등장한다.” -〈퍼블리셔스 위클리〉

“내가 읽어 본 신학기 그림책 중 가장 재미있다.” -애덤 렉스(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

“터무니없는 상황, 교사의 정체에 대한 미스터리, 진지하면서 유머러스한 스토리텔링.” -〈북리스트〉

“어린 독자를 위한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미스터리 그림책. 웃음과 토론 거리를 한꺼번에 안겨 준다.” -〈스쿨 라이브러리 저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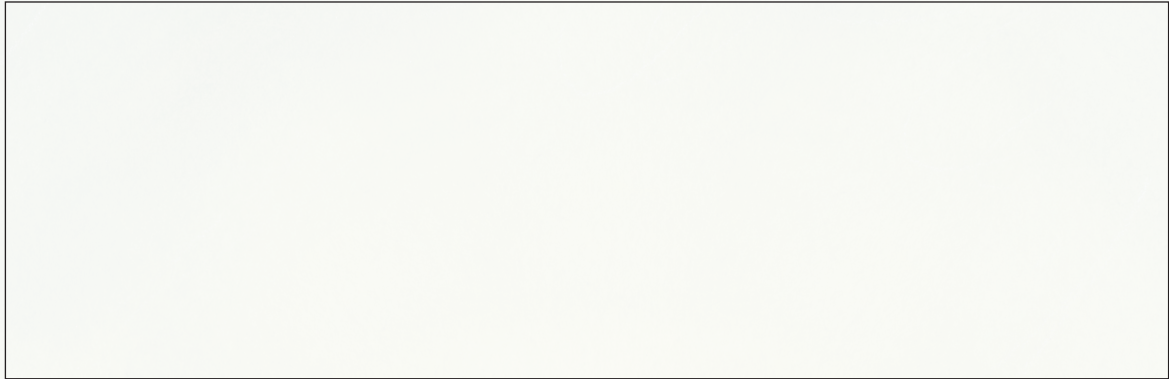
“서사의 모든 것이 유쾌하며, 진지하면서도 재미있는 질문에 끌릴 것이다. 샌드위치가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 -〈커커스 리뷰〉

『선생님 이름은 ㅅ』은 학생이라면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신학기 첫날에 대한 그림책이다. ‘ㅅ’이라는 단서만 남긴 채 끝끝내 나타나지 않는 담임 선생님은 도대체 누구일까 궁금증을 자아내며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또, 선생님이 없는 교실에서 환호하며 자유를 누리는 아이들의 발랄한 모습은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으로 밤잠을 쉽게 이루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안도를 넘어 설렘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

『선생님 이름은 ㅅ』 속에 녹아든 작가의 유머와 재치에 빠져들다 보면, 아이들은 어느새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 따위는 저 멀리 떨쳐 버리고 학교생활에 대한 기대감으로 설렘 것이다.

읽기 전 활동

1. 내가 다니는 초등학교 이름은 무엇인가요? 내가 생각하는 우리 학교의 장점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2. (담임 선생님을 만나기 전) 내가 상상한 우리 담임 선생님을 그려 보세요.(글로 묘사해도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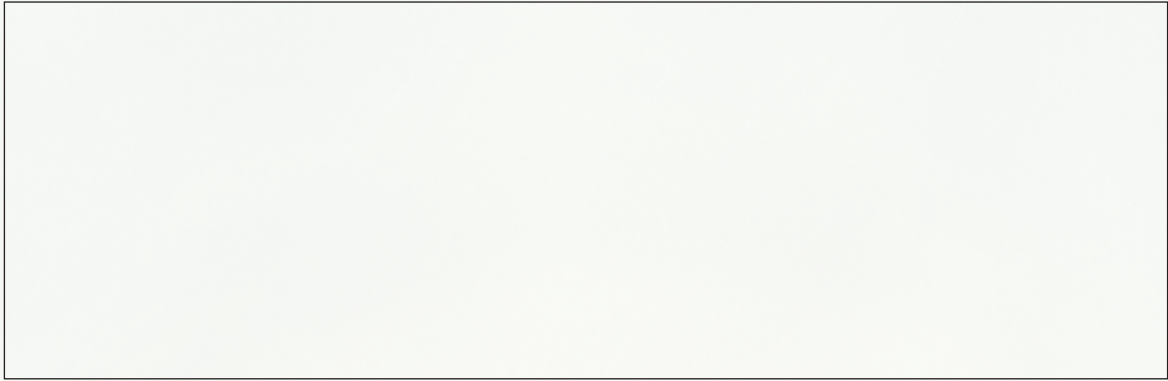
3. 책 표지를 살펴보고, 상상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읽기 중 활동

1. “선생님이 없으면 규칙도 없다.”는 의견에 대한 내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세요.
2. 교실에 있는 물건 중 하나를 정해 그 물건이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상상해 보고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3. 위 2번에서 만들어 낸 상상 속의 선생님을 그림으로 그려 보세요.



읽은 후 활동

1. 나와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친구와 어떻게 지내면 좋을지 생각해 보고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2. 내 주변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생활이 어려운 친구가 있다면 나는 그 친구에게 어떤 친구가 되어 주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3.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4. 우리 선생님 성함으로 삼행시를 지어 보세요.

